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공공미술로서의 벤치조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환경조형전공  
이 창 희

# 공공미술로서의 벤치조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환경조형전공

이 창 희

# 인 준 서

이창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2012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 논문 개요

인류가 문화적, 문명적으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미술의 영역 또한 그에 발맞추어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제 미술은 인물이나 풍경과 같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다양한 대상으로부터도 미술적 가치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예술에 적용하고 있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화랑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적이며 개방된 장소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에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시도하는 작가는 관객의 직, 간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러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미술작품이 나와는 무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확장성과 함께 본 연구자는 작품이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연에서 발견된 흐르는 물의 곡선과 자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공공장소에서 기능하는 아트 퍼니처로서의 벤치작품을 제작하였다. 자는 사회의 규범을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흐르는 물의 형태는 시각적 혹은 정신적 유연성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공공성으로서의 기준의 엄격함이 자율성으로서의 유연함으로 대치되고, 반대로 자율성으로서의 유연함이 엄격함의 틀 안에 있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벤치는 ‘앉는다’ 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그 자체의 구조적 조형성과 열린 공간에 놓여진다는 맥락에서의 공공성이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

게 가지고 있다. 벤치의 조형성은 환경적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벤치의 공공성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대중의 심리적이거나 편의성, 혹은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벤치는 휴식, 안락, 조화, 만남 등 사회적 소통의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는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정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는 아니다. 그곳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공간이다. 그 속에는 만남이 있고 휴식이 있고 소통과 공유가 있다. 이런 공적인 장소 속의 벤치는 시각적이고도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하며, 그러한 임무는 예술가들에게 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에 관해, 분석한 결과로 총 3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형성의 배경을 약술하고 조형적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작품 세계를 약술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제 1장 서론 ..... 1

제 2장 본 론 ..... 3

1. 작품의 형성배경 ..... 3

1) 공공미술 ..... 3

2) 벤치의 기능 ..... 8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0

1) ‘자’의 형태 ..... 10

2) 물결 표현 ..... 12

3. 작품 분석 ..... 16

제 3장 결 론 ..... 26

## 참 고 문 헌

## ABSTRACT

## 그림 목 차

[그림 1] Hammering Man .....	4
[그림 2] 오상욱 ‘대지의 어머니’ .....	9
[그림 3] 손현욱 ‘모자상-계’ .....	9
[그림 4] 끝은 자 .....	10
[그림 5] 직각 자 .....	10
[그림 6] 잔잔한 물결 .....	11

## 작 품 목 차

[작품 1] Rhythmic Ruler I, 2400×1600×4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16
[작품 2] Rhythmic Ruler II, 3000×2500×4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19
[작품 3] Rhythmic Ruler III, 700×130×2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21
[작품 4] Rhythmic Ruler IV, 800×500×1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23
[작품 5] Rhythmic Ruler V, 1650×700×10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25

## 제 1장 서론

시공(時空)은 ‘나’라는 경계에 의해 안과 밖으로 구분되기 마련이며, 또한 ‘나’라는 자아는 축적된 시간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신적 지주를 잃은 채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조차 모르는 현대인의 의식과 그 내면심리에 담겨진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아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와 물결의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을 통하여 혼란과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현실사회로부터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험으로 대변되는 과거와 상상을 통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신의 공간형성’이라는 명제는 인간이 삶의 편린, 수많은 이미지의 교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본성에 근거하며, 인간이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의 작품표면 일부 물결 표현기법의 리듬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의 획일성과 경직성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그 무엇보다도 ‘유연한 감성적 사고’를 시각화 하였고, “원래 그랬다”는 상식의 개념을 뒤틀고 있으며, 유연한 사고는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라는 필터를 통한다. 이것은 주관성으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객관적인 것은 되짚어보면 본인의 주관 을 통해 재해석된 물결의 유연한 시각이 되는 셈이다. 이 순간 주관과 객관 그리고 내부와 외부는 모두 한 몸일 수도 있으며, 이는 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원리와의 닮았다.

본 작품에서 보여지는 자의 표면의 물결 표현 역시 이런 원리이다. 주관과 객관이 서로 혼재되고, 시간성과 공간성이 서로 넘나드는 유연한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미술이 환경조각의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조각” 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작품을 제작 함으로써 스트리트 퍼니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물결과 자를 재 해석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작품과의 관계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물결의 리듬감과 자의 단순성 등 조형적으로 나타난 표현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자아의 확인’ 이 벤치에 투영되는 과정을 금속조각으로 형상화 하였다.

본 논문은 작품제작배경과 조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제작의도, 기법, 재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 제 2장 본 론

### 1. 작품의 형성 배경

#### 1) 공공미술

공공미술은 공공을 위한 미술 작품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을 의미하며,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영국의 존 월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sup>1)</sup>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트디렉터와 화상·큐레이터·평론가·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화랑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적이며 개방된 장소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에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시도하는 작가는 관객의 직, 간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러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미술작품이 나와는 무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

---

1)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조형,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p19.

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장소에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하는 남자 Hammering Man》[그림 1]나 헨리 무어(Henry Moore)의 몇몇 작품은 여러 개가 제작되어 여러 장소에 설치되었다.



[그림 1] Hammering Man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벽화·스트리트 퍼니처·포장작업(paving)·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근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 조형물의 형태를 뒤집어놓거나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공공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통적 공공미술이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하는

데 반해, 새로운 공공미술은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한다.<sup>2)</sup>

국내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경조형물이나 미술장식품이란 용어가 공공미술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해 왔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그러한 정책에 따른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반면 높아진 경제수준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도시의 외관을 남기게 되었다<sup>3)</sup>.

우리나라 경제의 급진적 성장으로 인해 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 사람들은 여가, 문화생활 및 환경개선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원 또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 시설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획일화 되어있고 주변의 환경과의 조화는 커녕 오히려 주위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수준으로 제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도시민보다 삶의 질을 더욱 더 중요시하게 될 미래사회의 도시민들은 반복된 일상생활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는 휴식공간을 보다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미래의 도심에는 과거와 같이 보고 즐길 뿐 아니라, 사용자 자신이 그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여 공간 내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입장에서 환경조형물, 또는 공공조각이 도시환경과 맺는 관계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

2) 공공미술 「두산백과」, www.encyber.com

3) 손현옥, 「“공공미술로서 기능성을 가진 조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논문, 2007, p.1.

과 같다.

첫째, 도시의 조망이나 하나의 초점 및 교차지점 등 광장의 중요 표식으로서 지표의 기능을 한다.

둘째, 도시의 비 인간적인 스케일을 완화하며 인간 척도의 인식단위로 전환하는 동시에 그 도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단계적 공간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조절기능을 한다.

셋째, 도시공간속에서의 심미적,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예술체험의 경험을 가져다준다.

넷째, 장소와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양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sup>4)</sup>

순수한 조각 작품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작가의 작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벤치나 쉼터 등 가로 시설물의 기능성을 감안하여 제작함으로써 가로 시설물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 역시 현재 상황보다 감상자들과 더욱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에 이르러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조각은 건축과 함께 인위적 환경의 분야에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모든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환경과 인간은 현대사회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미술은 커다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

4)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조형」,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p.20.

5) 이윤희, 「“크레스올텐버그의 청계천 스프링 작품분석을 통한 도시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2005, p.5.

도시환경에 놓여지는 조각은 도시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되어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적 요소로서 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환경에 적극적인 장식이나 미에서 찾는 가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준다.<sup>6)</sup>

환경조각은 공공장소에서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술로써 도시환경의 구성물로 등장하며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과하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SiteSpecialArt)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sup>7)</sup> 이때 장소 특정적 미술은 주어진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설치 미술이나 장소체제를 위한 디자인을 포함한다.

공공미술이 포함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의 범위는 야외 조각전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의 벽화작업, 도로포장, 거리가구(Street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 2) 벤치의 기능

벤치는 bank에서 유래하여 지금도 라틴계 국가에서는 벤치를 bank bench라고 부르기도 하며 bank가 은행과 벤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 옛날 물물 교환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던 시절, 사람들은 광장에 긴 의자를 두 고 그 곳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 날의 은행이 되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담을 기다리기 위해 또는 장기간 앉아 상담을 나누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등받이도

---

6) 루이스 멤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p.148.

7) 위의책, p.148.

필요하고 팔을 걸칠 수 있는 팔걸이도 필요했다. 이때 사용한 긴 의자가 bench 또는 bank라고 불리어 오늘 날 에 이르고 있다.<sup>8)</sup>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간의 성격에 맞게 설치된 가로변의 휴게시설은 정적인 공간으로 보행자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거리의 오브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휴게시설의 대표적인 시설물인 벤치이다.<sup>9)</sup>

벤치는 사람들이 앉아서 휴게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시설이고 사람들이 거리 공간에서 앉기라는 동작의 대상인데 우리가 늘 말하는 seating(공공용의자)에 해당한다.

공공벤치는 공공시설물의 일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 벤치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활동은 생리적 휴게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생각의 교류, 정신적인 긴장을 풀기, 레저, 관상 등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공공벤치의 기능표현은 바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생활의 정취, 배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sup>10)</sup>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공공벤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삶과 주변의 환경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의 기능을 가진 휴게 시설작품이다.

공공벤치 기능을 가진 조각을 살펴보면 오상욱 ‘대지의 어머니’ [그림 2] 손현욱 ‘모자상-계’ [그림 3]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

---

8) 주소군, 「“보행자를 위한 벤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 논문, 2010, p.23.

9) 정명희, 「“공공 시설물 옥외 벤치에 대한 도시 미관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p.30.

10) 주소군, 「“보행자를 위한 벤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 논문, 2010, p.26.

되었고 정적인 공간이면서도 보행자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거리의  
오브제가 되기도 한다. 벤치의 기능을 가진 조각은 그 역할에 기초하여 안락  
함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견고해야 한다.<sup>11)</sup>



[그림 2] 오상욱 ‘대지의 어머니’



[그림 3] 손현욱 ‘모자상-계’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 ‘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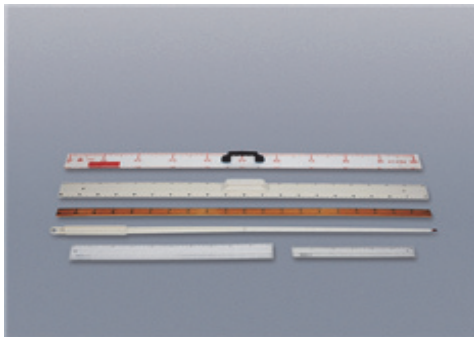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인간관  
계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 인생의 여정 같은 추상 개념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 ‘자’를 사용하였다.

‘자’는 측정을 위한 최초의 도구이다. 이는 거리, 길이, 치수를 표현하며  
이러한 자의 특징 요소는 오늘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수치화’ 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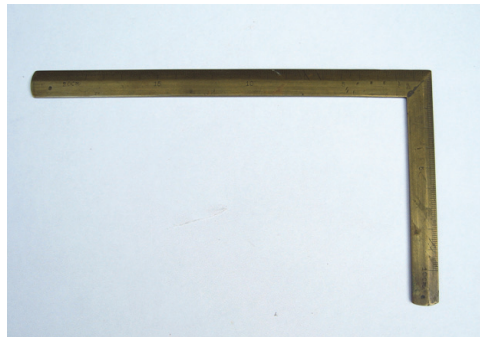
11) 양선섭, 「“휴게용 가로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p.13.

특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자’와 같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기준이 있으며 인간과 돈을,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의 정도를, 또는 사회 속에 나의 위치를 재어보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가깝다, 멀다, 라고 규정짓기 위해 우린 끊임없이 나와 너의 관계를 재고 있다 이렇듯 자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sup>12)</sup>

‘자’는 일반적으로 끈, 긴 막대, 모양의 물체에 눈금을 매겨서 이 눈금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자에는 곧은 자[그림 4], 줄자, 직각 자[그림 5] 등이 있다.



[그림 4] 곧은자



[그림 5] 직각 자

‘자’에 대해 프랑수아 다그네는 ‘척도의 풍부함은 그것이 의사소통의 정신을 부여한다는 사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즉, 척도 덕분에 실험가들은 그들의 실험결과를 교환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물

12) 이명선, 「“자의 상징성을 주제로 한 장신구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논문, 2004, p.11.

에 관한 지식은 자신과 유사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나타내게 되었다. 특수성이나 특이함에 관해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이 매우 가깝게 관계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인식과 지식, 그리고 실제에 관한 이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물리학적 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이다.’ 라고 하였다.<sup>13)</sup>

흔히 인간은 사회성을 지닌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관계를 맺어 사회화되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 나 사이에 공통적인 기호나 상징개념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며, 만약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관계란 성립하지 않는다.<sup>14)</sup>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도구는 ‘자’였으며 그 결과를 소통하기 위해 눈금과 숫자라는 단위가 생겨난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숫자와 눈금 표현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규정 되어진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안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소통 기호와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자’는 본인의 벤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간단한 기능 구조를 지니며 주제가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삶과 주변의 환경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의 기능을 하고, 자아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이해를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품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매체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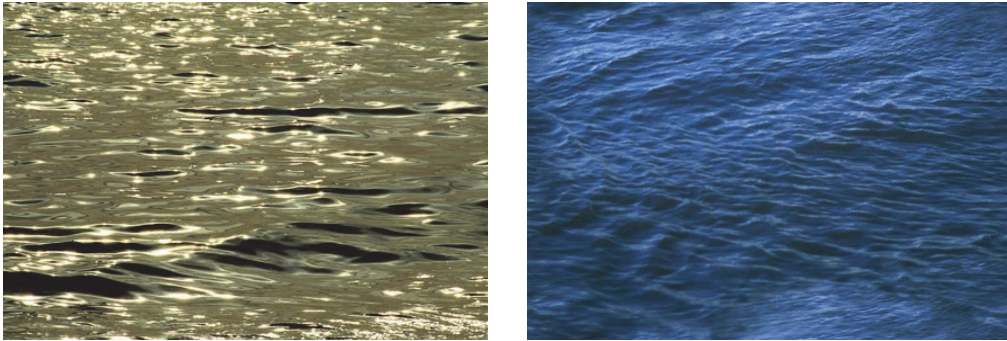
13) 드니 케디「수의세계」서울, 김택역, 시공디스커버리, 1998, p.144.

14) 김혜숙, 「인간관계론」서울, 양서원, 2003, p.17.

## 2) 물결 표현

물은 지구표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의 원초적 생성물질로 다양한 속성을 통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결[그림 6]이란 바람 등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어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운동 또는 그 운동의 형상이라고 하며 표면파, 폭풍 파, 지진 랑, 등으로 구분하고, 파장, 웨이브라고도 한다.<sup>15)</sup>



[그림 6] 잔잔한 물결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밀레토스 탈레스는 물은 우주의 근본 물질이며 그것으로 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었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sup>16)</sup>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물이 일으키는 상상력을 인간 사고가운데 가장 큰 가치부여작용의 하나 즉, 순수성에 의한 가치부여작용의 대상으로 보면서 정신을 정화시키는데 적절한 대상으로 보았다.<sup>17)</sup>

15)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1340.

16) KS데이비스 J.A 데이, 「물」 현대과학신서, 1976, p.15.

물은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물결의 형상으로 나타나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며 물결의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은 본인 작품 주제인 인간의 관계 속 감정 변화를 유연하게 느끼게 한다.

물결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며, 동적인 반복된 형태와 율동, 반복, 점증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

### 가. 율 동 (rhythm)

미적 형식 원리의 하나인 율동은 일정한 유사의 요소가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될 때 일어나는 통제된 운동감으로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구성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원리로서 예술활동의 본질적인 원리이다. 통일성을 전제로 한 동적 변화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구체적으로 연속할 때에 생겨나는 것으로 공통요소가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시각적인 동작의 관념이다. 펠드만(E.B.Feldman)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율동은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이라 했다.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반복되거나 비슷한 요소들의 반복, 배치에 의해 율동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이다<sup>17)</sup>

율동은 평행이 되거나, 비슷하거나, 대비되거나, 또는 방사되거나 할 수 있는 요소들 사이의 방향과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며 율동은 상하, 강약, 모양의 장단 등으로 성격적인 질서를 갖고 마치 음악의 박자처럼 반복된다<sup>18)</sup>.

기하학적 곡선의 연속적 반복에 의한 파장선과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복잡하

17) 가스통 바슬라르, 「물과꿈」 이가림역, 문예출판사, 1943, p.24.

18) 김현수, 「“율동적 이미지의 표현을 중심으로한 실내도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1996 p.7.

19) 우시우스 옹, 「색채 디자인의 원리」 유관호역, 청우 1990, p.23.

고 변화가 많고 유연한 자유 곡선은 선의 율동적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이다.<sup>20)</sup>

### 나. 반 복 (repetition)

형태와 형태, 혹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의미하고 자연 질서의 근본적인 공통된 형이다. 반복은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4차원 요소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반복보다는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운동감을 주게 되어 리듬이 생기고,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효과가 나타난다.

반복이 많게 되면 힘의 균일 효과가 나타나서 표현이 균질적으로 되며 풍부함을 더해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이 강조되면 전체적인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sup>21)</sup>.

### 다. 점 증 (gradation)

점증은 조화적인 단계에 의하여 일정한 질서를 가진 자연적 순서의 계열로 서로가 대조되는 양극단이 유사하거나 동등하게 조화를 이룬 단계로 일종의 유사라 할 수 있다.<sup>22)</sup>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반복으로써 연속적인 패턴의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단순히 점차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서 있는 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sup>23)</sup>

연구자의 작품 **Rhythmic Ruler** 표면에 표현된 잔잔한 물결의 리듬감, 반복, 점

---

20) 김현수, 「"율동적 이미지의 표현을 중심으로한 실내도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1996, p.7.

21)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34.

22) 한석우, 「기초 디자인」 미진사 1988, p.33

23) 우시우스 웅, 「평면 디자인 원론」 유한태역, 미진사, 1987, p.39.

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자’의 확실성과 경직성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 무엇보다도 ‘유연한 감성적 사고’를 시각화 하였다.

### 3. 작품 분석



[작품 1] Rhythmic Ruler I, 2400×1600×4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작품 1] Rhythmic Ruler I

크기 : 2400×1600×400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0

### 제작방법

1)윗면 3t stainless steel 판에 열을 가해 원하는 굴곡으로 변형 가공 후 옆면을 윗면 크기에 맞게 절단 용접 후 굴곡선에 따라 프라즈마로 절단하여 알곤 용접하였다.

2)핸드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한 다음 표면에 유리 샌딩을 하였다.

### 작품설명

연구자의 작품은 자와 흘러가는 물결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를 완성시켰고, 또한 사람들이 버스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잠시 쉬어 갈수 있는 공공벤치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속에는 정해진 약속이나 규범 등이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자’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자 종류 중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마주 보면 앉을 수 있는 직각자를 선택했다.

자의 표면에 보여 지는 물결 표현은 사람들이 앉거나 누웠을 때 편한 기능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안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사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작품 표면에 보이는 눈금과 숫자들은 사회에서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삶의 기호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은 쉼의 기능이 있는 벤치이다. 사람들이 앉았을 때 우선 편하게 설 수 있도록 벤치의 높이와 폭 등을 고려해 제작하였다.



[작품 2] Rhythmic Ruler II, 3000×2500×4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작품 2] Rhythmic Ruler II

크기 : 3000×2500×400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0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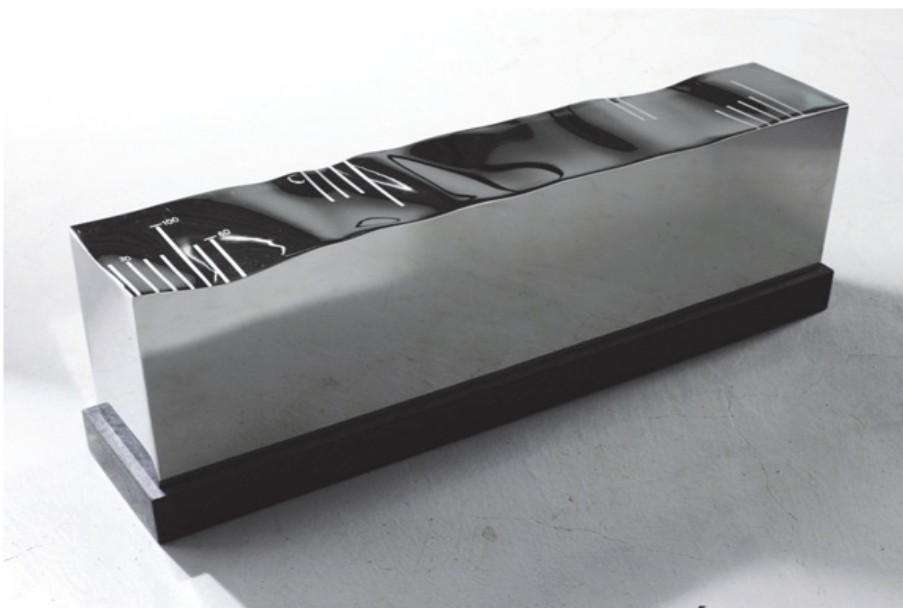
1)윗면 3t stainless steel 판에 열을 가해 원하는 굴곡으로 변형 가공 후 옆면을 윗면 크기에 맞게 절단 용접 후 굴곡선에 따라 프라즈마로 절단하여 알곤 용접하였다.

2)핸드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한 다음 표면에 유리 샌딩을 하였다.

### 작품설명

[작품 1] 과 동일한 개념의 연장으로 Rhythmic Ruler II 는 외부형태 표현을 달리하였다.

주어진 공간에 작품이 어떻게 설치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선이 변하기 때문에, 공간을 고려해 직선으로 된 곧은 자를 모티브 하여 제작 설치하였고, 사각의 기하학적 형태는 일정한 안정감을 주는 반면, 틀에 박힌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 주기도 한다. 이에 벤치를 설치할 때 작품과 작품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 정면, 측면에서 보이는 시각차이의 공간 확보를 하였다. 또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앉고 설 수 있도록하여 작품이 공간에 흡수되게 하였다.



[작품 3] Rhythmic Ruler III, 700×130×2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작품 3] Rhythmic Ruler III

크기 : 700×130×200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0

#### 제작방법

1)윗면 3t stainless steel 판에 열을 가해 원하는 굴곡으로 변형 가공 후 옆면 을 윗면 크기 에 맞게 절단 용접 후 굴곡선에 따라 플라즈마로 절단하여 알곤 용접하였다.

2)핸드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한 다음 표면에 유리 샌딩을 하였다.

#### 작품설명

본 작품은 앞의 작품과 같은 사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의미하는 바도 같다. “사물의 길이를 재고, 제도(製圖)에 사용하는 일직선으로 된 ‘자’의 경직된 느낌과 원칙성을 해체하였고 ‘자’의 표면에 리듬을 주어 흘러가는 물결처럼 표현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안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좀더 유연한 사고로 유도하기 위해 표현하였다.



[작품 4] Rhythmic Ruler IV, 800×500×1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작품 4] Rhythmic Ruler IV

크기 : 800×500×100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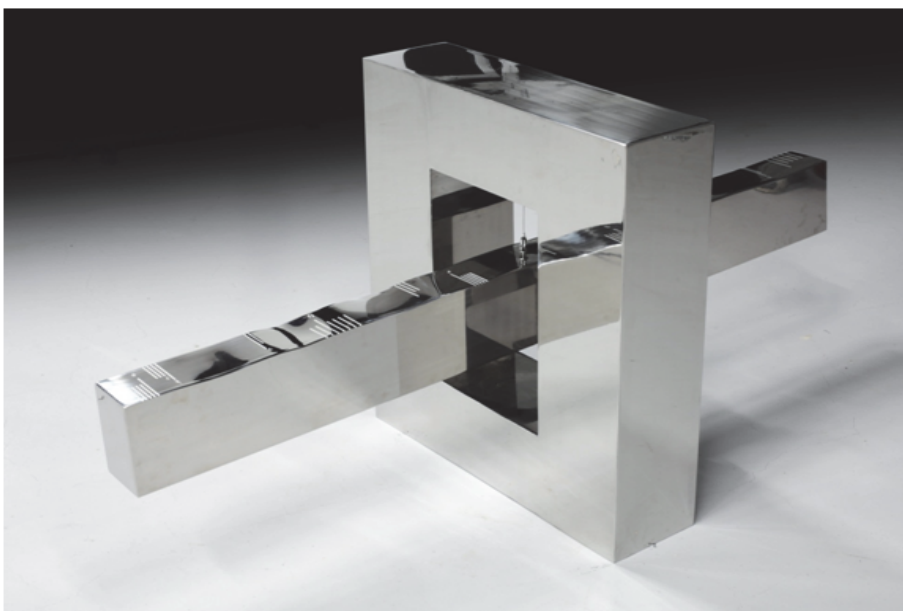
#### 제작방법

1)100Ø 45도 엘보를 서로 연결하여 용접한다. 핸드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한 다음 표면에 유리 샌딩을 하였다.

#### 작품설명

이 작품의 기본적 구조는 원이다. 원은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 전달이 빠른 조형표현 이다. 사실 본인의 작품에 모티브가 되는 ‘자’의 형태에선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 표현 주제가 되는 인간의 유연한 사고와 자유로운 상상에서 보여지 듯 작품의 형태도 자유로워질 필요성을 느낀다. [작품 1]~[작품 5] 작품들에서 보여지 는 흐르는 물결표현은 형태의 유연한 사고로 교체하여 작품에는 대입 하지 않았다.

본 작품은 원을 통하여 인간의 시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벤치의 설치 는 개인이 서로 마주 보며 앉아 쉴 수 있 도록하였고, 표면에 숫자와 눈금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 안에 인간의 주관적, 개인적인 생각들의 기호들이 제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표현 하였다. 지나 버린 기억에 대한 인간의 동경, 현재, 관계,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대한 모색, 시간성에 대해 갈구하는 사회 속 인간의 마음을 벤치에 나타내었다.



[작품 5] Rhythmic Ruler V , 1650×700×1000mm, stainless steel, 유리샌딩,  
2010

## [작품 5] Rhythmic Ruler V

크기 : 1650×700×1000mm

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10

### 제작방법

1)CAD로 작품의 이미지를 제도하여 3t stainless steel 철판을 레이저 가공 후 그 위에 3t stainless steel 철판을 원하는 굴곡으로 변형 가공 후 용접하였다.

2)핸드그라인더로 용접부위 마감 후, 포터블 그라인더로 표면을 밀러 처리한 다음 표면에 유리 샌딩을 하였다.

### 작품설명

작품은 사각형의 곧은 ‘자’의 형태를 사용하여 제작 하였고, 사각과 사각사이의 공간을 구성하고 서로 맞물려 저울이나 시소의 형태를 유도하였다.

중간의 조형물을 관통하는 ‘자’의 양쪽 끝에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게 하였고, 한쪽만 앉을 경우 기울어지도록 하여 인간이 혼자서는 살수 없는 사회 구성원임을 표현하려 하였다. 중앙의 물결 표현이 없는 조형물은 정형화된 사회의 틀을 의미한다.

[작품 5]는 인간이 사회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 제 3장 결 론

인류가 문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미술의 영역 또한 그에 발맞추어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제 미술은 인물이나 풍경과 같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다양한 대상으로부터도 미술적 가치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예술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화랑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적이며 개방된 장소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시도하는 작가는 관객의 직, 간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러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미술작품이 나와는 무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미술은 작가의 보다 활발하고 의식있는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 할 수 있는 작품의 구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환경조각의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실용성과 예술적 표현가치를 동시에 소유해야한다.

벤치(bench)로서의 조각을 통하여 앞으로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법과 기능적 작품 연구에 있어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조형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조형」,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 공공미술 | 「두산백과」, www.encyber.com.
-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K.S데이비스 J .A 데이, 「물」, 현대과학신서, 1976.
-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꿈」, 이가림역, 문예출판사, 1943.
- 김혜숙,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2003.
- 우시우스 옹, 「평면 디자인 원론」, 유한태역, 미진사.
- 우시우스 옹, 「색채 디자인의 원리」, 유관호역, 청우, 1990.
- 루이스 멈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 한석우, 「입체조」, 미진사, 1991.
- 한석우, 「기초 디자인」, 미진사, 1988.
- 드니 게디, 「수의세계」 서울, 김택역, 시공디스커버리, 1998, p.144.
- 주소균, 「보행자를 위한 벤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 논문, 2010년2월.
- 정명희, 「공공 시설물 옥외 벤치에 대한 도시 미관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년 12월.
- 양선섭, 「휴게용 가로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논문 2005.
- 이명선, 「자의 상징성을 주제로 한 장신구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논문, 2004.
- 손현욱, 「“공공미술로서 기능성을 가진 조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논문, 2007, p.1.
- 김현수, 「윝동적 이미지의 표현을 중심으로한 실내도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윤희, 「크레스웬텐버그의 청계천 스프링 작품분석을 통한 도시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2007.

# **ABSTRACT**

## **Research on sculpture of bench as a public art**

- Perspectives on art works of the author -

Lee, Chang-Hee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m's University

Along with a cultural or a civilizational development of a mankind, art had extended its meaning and had undergone development of its own. Nowadays art not only seeks for beauty in a conventional ways such as paintings of scenery or portrait of a person, it also searches for artistic value from various subject in everyday life and are applied in artistic ways.

In the 21st century, public art in modern society are exposed to public in an open space and intend to communicate with a general audience directly. Therefore, artists involved in public art must be aware of audience's direct involvement in the art works and provide experiences that enrich everyday lives. In the art works represented in the thesis, extension of meaning of public art had been researched with a focus on communication with audience.

A curvature created by flowing water in nature and the shape of ruler had been the motives of the bench work, an artistic furniture serving its purpose in public. The shape of ruler represents the measure of standards

set by modern society and the flowing water represents visual or psychological flexibility of mankind. A combination of a curvature and a straight line represent public welfares and the freedom at the same time. A confrontation of strict rules and standards of public welfare and flexibility of freedom are intended to mutually supplement of each other.

Bench in the art works serve more than their function as a place to sit. They contain the concept of openness and the structural figures as they will be placed in an open space for the public. Structural figure of bench could be combined with environmental aspects and it is important that they must be designed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s. Bench must be user friendly taking into account of convenience and the state of mind of users. On top of the two former aspects of bench, benches also possess communication and cultural aspects such as rest, peace, encounter and harmony. Hence benche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in terms of emotion and culture. Public place is not just a place for encounters. It's a place of social and cultural welfares with encounters, peace, communication and rest. Benches in public space must serve visual and cultural satisfac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such mission is at hand of artists.

The thesis takes deep dive into art works and is organized in three sections. In the introduction, purpose and the methodology of art works are depicted. In the second section, background information on art works and the formative representation methodology are described. In the conclusion, overview of the thesis is given with the future works.